‘코스트코 익산점’ 입점 탄력

전북자치도 교통영향평가 통과… 건축 심의 · 허가 절차 진행

호남권 첫 코스트코 입점에 속도가 붙고 있다.

3일 익산시는 ㈜코스트코 코리아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익산점은 왕궁면 동촌리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만 5,664.23㎡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영향평가는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교통량을 조사·분석해 교통 혼잡, 안전 등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다.

이번 심의는 약 2주간의 사전검토를 포함해 심도 있게 진행됐으며, 수정 의결로 교통 대책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면 ㈜코스트코 코리아는 향후 익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 곧바로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교통영향평가 통과로 코스트코 익산점 입점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시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상생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트코 익산점이 들어설 왕궁면은 호남고속도로 익산나들목과 1번 국도가 인접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익산점이 개점하면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활성화도 기대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6년 고독사 위험군 대책 본격 추진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심화 대응… 체계적 조사 · 발굴 · 선제 지원 강화

군산시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을 기존보다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정확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선제적 발굴체계 구축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고독사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군산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왔으나, 최근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더욱 정밀하고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를 위해 먼저 정확도 높은 실태조사와 데이터 기반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1인 가구 실태조사, 행복e음 빅데이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여러 정보를 통합 분석해 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하고, 발굴 즉시 지원으로 이어지는 원스탑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기적 안부 확인을 시행하는 AI 케어콜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네이버가 개발한 클로바 케어콜 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 감지하고, 즉시 방문·대응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 생명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자조모임, 소그룹 식사, 푸드테라피 등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해, 고립감 해소와 사회적 연결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생활환경 개선 지원 역시 현장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저장강박가구 청소·소독 △심리 상담 연계 △‘우리동네 홍반장’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주거수리 등 군산시만의 특화사업을 통해 주거·생활 문제를 즉각 개선하고,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에 즉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연말까지 ‘2026년도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추진계획 및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바탕으로 군산시에 맞는 특화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독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구조적 과제.”라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국립 익산 치유의숲, 벌써 ‘호응’ … 내년 정식 개장

익산시가 조성한 국립 익산 치유의숲이 시범운영 단계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내년 정식 개장을 앞두고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임시 운영 중인 국립 치유의숲이 12월까지 단체 예약이 모두 마감되는 등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함라산 치유의 숲은 지난달부로 진입로 공사가 마무리돼, 내년 초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식 운영을 앞두고 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녹색 인프라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5억 5,000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시는 함라산에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고 △지역특화림 조성(8억 원) △도시숲 조성(8억 원) 사업과 연계해 사계절 경관 숲과 명품 숲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강 물길과 한반도 최북단 야생 녹차밭이 어우러진 함라산의 생태·경관 자원을 활용한 ‘함라산 데크길 2단계 사업’(0.6km)도 지난 7월 완료돼 많은 관람객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어 선비바위 일대를 따라 금강 조망이 가능한 숲길을 조성하는 3단계 사업은 2027년까지 추진된다. 시는 단계별 사업을 통해 함라산 숲길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현재 함라산에는 치유의숲을 비롯해 △산림문화체험관 △녹차밭 데크길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이 조성돼 연간 7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인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평생학습관이 올 한해 시민들이 참여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작품 전시회와 디지털 성과공유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학습의 즐거움 · 성취감 소통의 장

군산시평생학습관, 작품전시회 · 온라인 성과 공유회 개최

군산시평생학습관이 올 한해 시민들이 참여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작품 전시회와 디지털 성과공유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완성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성과물을 소개함으로써 학습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먼저 작품 전시회에서는 힐링 꽃그림(김명준 강사)·유화 그리기(이경욱 강사) 강좌를 통해 표현해낸 꽃과 풍경, 사물 등 다양한 아름다움을 담은 30여 개의 작품이 선보인다.

전시회는 8일부터 12일까지 군산시청 2층 시민 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시회가 끝나면 15일부터는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누리집(https://lll.gunsan.go.kr)을 통해 디지털 성과 공유회가 열린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평생학습 결과물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해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과 시민들이 강좌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디지털 성과 공유회에서는 공연(6개 강좌), 작품(10개 강좌) 80여 개의 콘텐츠가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2025년 성과공유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 더 많은 시민들과 학습의 결실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평생학습관은 2025년에 300개 강좌, 3,5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다. /군산=김만호 기자

‘2025 군산시자원봉사자대회’ 성료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는 3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20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2025 군산시자원봉사자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며 자원봉사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자원봉사자, 관계기관 및 단체 내빈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하고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활동 영상 상영 △기념식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자원봉사 유공 표창 시상식 순으로 이어졌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 수해복구와 재난 대응에 앞장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기리고자 ‘재난·재해 자원봉사 유공 표창’을 신설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연계·협력에 힘써온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수상자를 축하하는 한편,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고, 기억에 남았던 현장 경험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군산=김만호 기자

지역 소식통

국립군산대 학생들 소공인 디지털 지원 앞장

국립군산대학교 학생들이 군산시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현장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3일 국립군산대에 따르면 인사이트 프로그램 동아리 ‘군산버스 빵빵이’에서 최근 가구 전문점 ‘소낭구 가구’의 요청을 받아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협력 모델을 선보였다.

교육은 실제 매장 운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 및 운영 방법 △SNS 홍보 전략 △네이버 플레이스 노출 개선 방법 △블로그 글쓰기 기법 △캔바(Canva)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실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학생들은 소낭구 군산점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현장서 새로 개설, 도움을 제공하기도 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시, 시민 안전 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익산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안전시스템을 도입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시는 이달내로 여성안심귀갓길 등 취약지역 4개소의 방범용 CCTV에 ‘지능형 이상음원 탐지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의 영상 중심 관제 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비명, 차량 충돌음, 유리 파손음 등 일반적인 생활 소음과 구분되는 이상 음원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CCTV 통합관제센터’에 즉시 알림을 전송하고 관련 영상을 자동으로 송출한다.

특히 시각 정보 중심의 기존 방식에 청각 기반 음향 정보가 더해지면서, 화면 밖에서 발생하는 위험 상황이나 어두운 환경 등 영상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도 신속한 파악과 대응이 가능해졌다. 범죄 예방은 물론 골든타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이재춘기자